

2. 프로그램 세부계획

회차	프로그램 주제	교육내용	강사명	진행방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좌, 참여자 소개 글쓰기 규칙, 이론 이 강좌에서 어떤 삶의 지혜를 얻을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좌의 내용과 목표를 이해한다. 자기소개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간다. 글쓰기 과정을 이해한다. 글쓰기 규칙과 방법을 이해한다. 강좌 참여 서약서 읽고 서명하기 	오현석	강연 및 참여형 토론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사람들의 일상1 부산 산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p>부산은 평지가 거의 없어 해방 이후 피란민들이 밀려들고 살기 위해 산비탈에 움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던 것이 부산 산동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부산 곳곳에 힘없는 서민들이 주축한 산동네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산동네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요산 김정한의 작품에는 인간이 삶을 살아갈 공간과 장소가 끊임없이 침탈당하는 부조리한 상황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요산의 작품을 통해서 부산 산동네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 '인간에게 보금자리란 무엇인가'하는 고민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한, 「산거죽」, 「인간단지」 조갑상, 「은경동 86번지」 	오현석	강연 및 참여형 토론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사람들의 일상2 부산 바다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 	<p>부산은 바다의 도시로 많은 이들이 바다에 의지해 삶을 살아왔습니다. 특히 과거 제주에서 넘어 온 해녀들이 부산 바닷가에 정착하면서 해녀 문화가 동해안으로 퍼져 나갈 수 있었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김정한과 오영수의 소설에 등장하는 해녀의 모습은 고단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강인하고, 순수한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산 사람들의 일상을 바닷가 해녀와 바다 사람들의 삶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한, 「액년」 / 오영수, 「갯마을」 문성수, 「그는 바다로 갔다」 	오현석	강연 및 참여형 토론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의 장소성1: 범어사와 민족의식 부산에서 범어사는 어떤 의미인가? 	<p>부산의 범어사는 선찰대본산으로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한국의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먼저 강의에서 범어사의 역사와 위상을 살펴보고 일제강점기 당시 범어사의 상황을 강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정한의 「사하촌」에 드러나는 사찰의 모습을 확장시켜 종교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토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사밭재」가 환기하는 공간의 의미를 살펴보고 등장인물이 지닌 가치관과 인식을 바탕으로 종교적 공간에 대한 참여자들의 생각을 나눌 예정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한, 「사하촌」, 「사밭재」 	오현석	강연 및 참여형 토론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의 장소성2: 피란도시 부산과 부 	<p>요산 김정한은 남해에서 교사 생활을 하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부산에서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했던 작가입니다. 한국전쟁기 많은</p>	오현석	강연 및 참여형 토론

	<p>산사람들 - 피란도시 부산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p>	<p>작가들이 서울에서 피란수도 부산으로 모여 작품활동을 이어갔는데 요산 김정한은 피란민의 시선이 아닌 부산 지역민의 시각으로 당시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즉, 부산의 모습을 좀 더 부산답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김정한 소설을 통해서 피란작가들이 살피지 못한 부산의 진면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동리 「밀다원시대」 - 이호철 「소시민」 - 김정한, 「사라진 사나이」, 「개와 소년」 		
6	<p>지역민으로서의 자기 서사 쓰기 1차</p>	<p>이 강좌에서 다룬 지역민의 삶의 특성을 바탕으로 자기 서사 쓰기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강좌 시간에 발표 및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부·울·경 지역의 문학과 문화는 물론 수강생들이 나고 자란 지역의 애착감, 고향 의식, 자연환경, 이웃, 직업, 가족애 등 다양한 주제를 탐독하고 자기화하고자 했습니다. 자기 서사 쓰기 과제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써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단, 수강생 대부분이 긴 글을 쓴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A4 2쪽 이내의 짧은 글 또는 그림 수필, 디카시, 노랫말 등 다양한 양식으로 자신의 인생 한 토막을 쓰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민(수강생)으로서의 자기 삶 글 계획 	오현석	<p>피드백 기반 순환형 글쓰기 (토론)</p>
7	<p>■ 부산의 문화1: 낙동강 문학과 민중의 삶 - 부산 사람들에게 낙동강은 어떤 의미인가?</p>	<p>먼저 수강생들이 제시된 텍스트를 읽어 옵니다. 강의는 포석 조명희와 요산 김정한의 작품 경향과 작가정신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작가 이해를 바탕으로 조명희의 「낙동강」에서 드러나는 식민지 조선 민중들의 삶을 이해하고 낙동강이 당시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토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에서 산업화 시기 낙동강이라는 공간에 기대어 살아가는 민중들의 삶을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에 대한 수강생들의 생각이나 경험 등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한, 「모래톱 이야기」, 「평지」 - 조명희, 「낙동강」 	오현석	<p>강연 및 참여형 토론</p>
8	<p>■ 부산의 문화2: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는 부산 - 이미지로 읽는 문학</p>	<p>눈으로 읽는 문학이 주는 상상함을 통한 즐거움이 주는 매력과 달리 눈에 보여 지는 즉각적인 심상을 상기시키는 사진의 매력은 모두 의미있는 경험입니다. 앞선 시간 동안 배운 문학을 통한 지역 이해를 좀 더 실증적인 관점에서 체화시키고 실감할 수 있는 사진집을 통해 지역의 이해를 깊이 있게 하고자 합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최민식, 정남준 두 사진가의</p>	오현석	<p>강연 및 참여형 토론</p>

		<p>사진집은 부산의 과거, 현재 풍경을 오롯이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지역 알기에 가장 적합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민식, 『인간 제15집』(사진집) - 정남준, 『잘 지내나요』(사진집) 		
9	<p>■ 내가 살아가는 부산 2026년 부산의 곳곳</p> <p>- 내가 살아가는 부산은 어떤 가치를 지닌 곳인가?</p>	<p>우리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공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오롯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산에서 현재 우리가 걷고, 보고, 경험하는 공간을 담고 있는 문학작품을 대면함으로써 로컬리즘을 나의 정체성으로 확장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주변을 새롭게, 가치있게 보고 있는 문학작품을 읽고 지역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요아킴, 『부산을 기억하는 법』 	오현석	강연 및 참여형 토론
10	<p>■ 내가 만나는 사람들 2026년 부산 사람들</p> <p>- 나와, 부산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p>	<p>우리는 살아가면서 과거를 탓하거나,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 하거나, 미래의 요행을 바라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테마소설집은 현재 부산에서 살아가는 작가들이 현재의 부산 사람을 이야기하는 작품들로 묶여 있어서 나 이외의 지역을 사라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공감할 수 있었던 우리의 로컬리즘을 찾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민혜 등, 『(테마소설집) 모자이크, 부산』 	오현석	강연 및 참여형 토론
11	<p>지역민으로서의 자기 서사 쓰기 2차</p> <p>- 나는 지역민으로서 무엇을 쓰는가?</p>	<p>지역민으로서의 자기 서사 쓰기 2차 강좌는 6회차에서 발표했던 개인 글 계획을 강연자가 직접 피드백을 진행한 후 다시 고쳐쓰기 한 글을 발표 및 동료 토의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 또 본인이 쓴 글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인생 시기별 글감 발견하기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강좌는 12회차로 끝나지만 지혜학교를 통해 인생 글쓰기 경험을 쌓아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글감 목록을 작성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민(수강생)으로서의 자기 삶 글쓰기 자료 	오현석	피드백 기반 순환형 글쓰기 (워크숍)
12	<p>■ 비평가 발표회 및 인문 프로그램 기획</p> <p>- 우리는 지역민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p>	<p>마지막 시간으로 이 강좌를 통해 각자가 이해한 부산 지역민으로서의 삶을 로컬리즘으로 승화시킨 글에 대한 발표 및 나눔을 하는 시간입니다. 각자 글을 한 편씩 완성하여 발표하고 조언해 주는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수강생들의 삶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수속 인문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여 다음 발걸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p>	오현석	심화활동 (후속모임)